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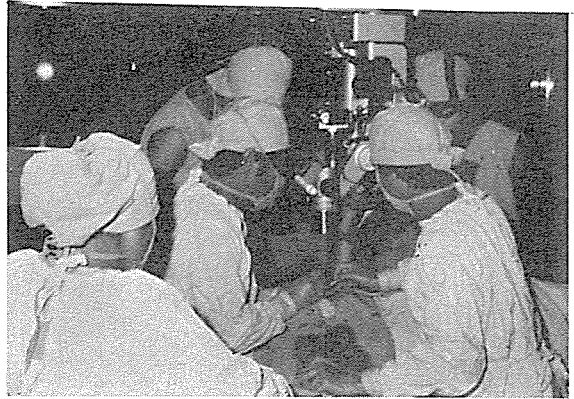
개안수술 사업보고

복음의 빛이 전달된 한국천주교회 200 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영세민 실명자에게 무료 개안수술을 시행하여 불우한 맹인들에게 “빛”을 찾아줌으로써 교회본연의 사명인 사랑의 실천을 구현하고자 지난 1983년 5월에 시작한 개안수술 자선사업은 2년 6개월에 걸친 사업기간중 모두 1,350안(1,136명)의 진료실적을 올리고 오늘 이 사업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에는 맹인들보다 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겠으나 어느 특정대상자들을 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되었고 또한 복음의 전파로 영혼의 눈을 뜨게한 200 주년을 맞이하여 육신의 눈을 뜨게하는 개안수술사업은 “이 땅에 빛을”이라는 200주년 표어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자선사업이었기에 교회내외의 많은 관심을 모아왔습니다.

1983년 2월 14일 200 주년기념사업위원회로부터 이 사업의 관장을 위촉받은 한국가톨릭병원 협회는 자선사업부위원과 이사병원장으로 구성하는 개안수술관계자회의를 소집, 사업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지역별로 지정한 11개 개안수술 의료기관에서 1983년 5월부터 1984년 말까지 916명(1,083안)을 진료하여 계획한 수술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수술신청을 받고 차를 기다리는 많은 실명자를 남긴채 일단 200 주년사업의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1984년 추계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200 주년 사업기간중 수술신청서를 받고도 수술혜택을 주지 못한 실명자를 위하여 200 주년 후속사업으로 1985년까지 맹인개안수술을 계속 실시하자는 안이 결정됨에 따라 신청자중 수술이 가능한 불우 영세민을 수술대상자로 선정하여 1985년 9월까지 수술을 희망하는 신청자 전원에게 개안수술을 베풀었습니다.



개안 수술 광경

수술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안수술 실적〉

지정의료기관	시 술 실 적
성 모 병 원	146안 (139명)
강 남성 모 병 원	180안 (156명)
성 바 오 로 병 원	59안 (46명)
메 리 놀 병 원	225안 (182명)
성 분 도 병 원	77안 (76명)
대 구 파 티 마 병 원	118안 (102명)
가 톨 릭 병 원	134안 (114명)
성 빈 센 트 병 원	32안 (29명)
광 주 흥 안 과 병 원	151안 (103명)
대 전 이 안 과 의 원	192안 (163명)
보 은 성 모 병 원	36안 (26명)
계	1,350안 (1,136명)

이러한 큰 사업을 성취하게 된 것은 이 사업을 위하여 헌금해주신 전국신자들의 따뜻한 온정과 진료를 맡아주신 병원당국 및 의료진, 이 사업추진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의 헌신적 봉사에 하느님의 축복이 같이 하심이라 믿습니다. 아울러 시종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협조해주신 언론보도기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1985년 10월 25일

한국가톨릭병원협회
개안수술자선사업부